

발 간 사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견해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각박해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나 단체의 권익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폭이 그만큼 확장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언론중재신청건수가 724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511건과 단순 비교하여도 40%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점증하고 있는 언론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4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출범시켜 언론관련 피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자문을 도맡아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피해 예방 및 오보방지를 위한 대내외 교육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는 등 명실상부한 원 스톱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매년 언론 관련 판결자료를 집대성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최종심급 판결을 중심으로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반론보도청구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의 판결을 수록하여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 현업 종사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과 책임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04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